



왼손잡이 A.J. 민터가 시즌 종료 수술을

왼손잡이 A.J. 민터가 시즌 종료 수술을 검토하는 가운데 메츠는 브룩스 레일리와 185만 달러 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구원투수 A.J. 민터가 장기 결장하면서 뉴욕 메츠는 화요일 동료 좌완 투수 브룩스 레일리와 185만 달러를 보장하는 1년 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다.

레일리는 지난 5월 팔꿈치 수술에서 회복하면서 불펜 투구를 하고 있지만 언제 불펜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핸디캡 토토사이트](#)

민터는 토요일 워싱턴에서 부상을 입은 후 왼쪽 하반신 염좌로 IL에 입원 중입니다. 그는 일요일에 MRI를 받았으며 시즌 종료 수술이 가능합니다.

카를로스 멘도사 감독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꽤 심각한 부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멘도사는 민터가 여러 의견을 받았으며 "아마도 하루나 이틀 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아닌 휴식과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여전히 옵션으로 남아 있지만 31세의 투수는 어쨌든 장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뉴욕 불펜진에게 큰 좌절이며, 메츠가 화요일 밤 애리조나와의 시리즈 개막전에서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인 20승 9패를 기록한 큰 이유입니다.

민터는 1월에 자유계약선수로 메츠에 합류하여 2026년에 1,100만 달러의 선수 옵션이 포함된 2,200만 달러, 2년 계약으로 NL 동부 라이벌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떠났습니다.

마무리 투수 에드윈 디아즈의 좌완 최고 투수로 13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64, 7홀드를 기록 중입니다. 민터는 11이닝 동안 14개의 삼진과 5개의 볼넷을 기록했습니다.

멘도사는 "큰 타격입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높은 레버리지를 던지는 능력뿐만 아니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나설 것입니다. 남자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일찍 내려가는 것은 그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년 경력의 베테랑인 레일리는 지난 시즌 메츠에서 8경기에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했고, 4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부상을 당한 후 11월에 자유계약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뉴욕에서 66번의 등판에서 1승 2패 평균자책점 2.80, 3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6월 말에 37세가 되는 레일리는 시카고 컵스(2012-13시즌), 신시내티(2020시즌), 휴스턴(2020-21시즌), 탬파베이(2022시즌), 메츠(2023-24시즌)에서 6승 10패 평균자책점 4.04, 12세이브를 기록 중입니다. 2015~19시즌에는 한국에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멘도사는 "그는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불펜을 계속 던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안에 타자들과 대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일리는 올해 150만 달러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의 계약에는 2026년 475만 달러의 팀 옵션과 35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현역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추가되면 2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투수로서 경기에 대한 성과 보너스로 10, 15, 20경기에 각각 125,000달러, 25, 30, 35경기에 각각 175,0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일리는 2026년 투수로서 경기당 35, 40, 45, 50, 55, 60, 65달러씩 총 25만 달러의 성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은 또한 좌완 선 마네야를 60일 IL로 이적시키고, 트리플A 시러큐스에서 우완 케빈 헤르게트를 소환하며, 우완 호세 우레냐를 지명했습니다.

우레냐는 월요일 워싱턴에서 열린 마지막 3이닝 동안 68개의 투구를 던져 19-5로 승리하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우레냐는 볼넷 1개와 삼진 3개로 5실점 7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멘도사는 메츠가 코다이 센가에게 관례적인 5일간의 휴식을 제공함에 따라 좌완 투수 브랜든 와델이 트리플 A 시러큐스에서 콜업되어 수요일 밤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일부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익수 브랜든 님모는 화요일 밤 메츠 클럽하우스를 돌아다니는 벌레를 잡은 후 몸이 아파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멘도사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님모는 월요일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만루 홈런과 3점 홈런을 포함해 9타점으로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습니다.

멘도사는 "브랜든을 쉬게 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어젯밤 그 경기가 끝난 후에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그냥 아파요. 지금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열도 꽤 약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정맥주사를 맞고 있고, 오늘 언젠가는 우리를 위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줘야
해요." [농구 토토](#)